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5월 12일(주일) 제1245호



사진은 지난해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자들

행복한 삶, 새로운 꿈이 시작된다!

부모, 가족, 친구, 지인 등에게 복음 전하는 최고의 기회
순맛춤전도집회 5월 셋째 주, 행복드림콘서트 5월 20일

소중한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과 '새로운 꿈'을 선물하는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순맛춤전도집회가 5월 셋째 주부터 시작되고, 60세 이상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복드림콘서트'가 5월 20일 막 오른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 가족, 친구,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다.

순맛춤전도집회는 5월 셋째 주부터 온누리교회 모든 순에서 실시한다. 전도대상자들의 취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복음을 전하는 맞춤형 전도집회이다. 점심방, 영화관, 딸기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순맛춤전도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전도대상자를 위한 작은 이벤트까지 준비한다면 금상첨화다.

순맛춤전도집회는 전도대상자와의 만남, 특별한 이야기 나눔, 간증, 편지읽기, 4영리 나눔, 영접기도, 축복의 시간 등의 순으로 이어가면 된다. 순맛춤전도집회 이후에는 감사카드 전달, 안부전화 등으로 전도대상자를 끝까지 돌보는 게 중요하다. 새신자들을 위한 열린새신자 예배,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결혼예비학교, 회복사역 프로그램 등에 연결해도 좋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

하는 행복드림콘서트는 5월 20일(월)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행복드림콘서트에 참여하는 부모와 자녀 500여 명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행복드림콘서트에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저녁만찬,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 영혼을 터치하는 감동 메시지가 준비 되어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영화배우 고은아 권사, 가수 이무송·노사연 부부, 남성 4중창 CRUX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5월 15~16일 시즈오카 그랜십 대홀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집회가 이번 주 15일(수)과 16일(목) 시즈오카 그랜십에서 막 오른다. 15일에는 리더십포럼과 가스펠나이트, 16일에는 교회세미나와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집회가 열린다. 15일 니혼다이라호텔에서 열리는 리더십포럼에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 경제, 교계 리더십 약 150명이 참석한다. 저녁에는 그랜십 중홀에서 가스펠나이트가 진행된다. 가와구치 류타로 형제(hi-ba대표)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레이스키즈콰이어, 나카야마 유타(워십 리더)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16일 그랜십 회의실에서 열리는 교회세미나에서는 박종길 목사가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기복 교수가 '가정사역과 자녀양육', 오오카와 목사(아마토갈보리채플)가 '1000명 예배와 400명 기도회의 길과 속'을 주제로 강의한다. 저녁에는 그랜십 대홀에서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집회가 열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테너 배재철, 소프라노 김영미,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집사,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코가, 발레리나 고세원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지난 2일 참가자 교육을 실시했고, 시즈오카 현지 실행위원회는 현지 라디오와 신문 광고 등으로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9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

6월 12~14일 서빙고 본당

2019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이 막 오른다. 6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12일 마음이 가난한 자는(마 5:3), 13일 긍휼히 여기는 자는(마 5:7), 14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마 5:6)을 주제로 이재훈 담임목사, 이인호 목사(더 사랑의 교회),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가 강의할 예정이다. 12일 오후 김양옥 목사와 13일 오후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가 영역별 강의를 한다. 집회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오후 2시까지 금식기도로 진행된다.

12일(수)과 13일(목) 저녁 7시 30분에는 직장인을 위한 마리아행전도 열린다. 마리아행전 참가신청은 오늘(12일)부터 받는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와 서빙고와 양재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이며, 당일등록은 없다. 회비는 일반 4만 원, 저녁 2만 원이다. 6월 4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일반 2만 원, 저녁 1만 원 할인해 준다. 문의: 02-3215-3667/3201, 02-570-7277

다음주 NGO 더멋진세상 정기약정 행사

정기후원 약정서, 무통장입금, 홈페이지 참여

NGO 더멋진세상이 다음 주일(5월 19일)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당신의 나눔이 선교입니다'를 주제로 정기약정 행사를 실시한다. 이날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무통

장입금을 하면 된다.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로도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하는 성도는 신규 또는 증액 후원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작성금액, 자동이체란에 체크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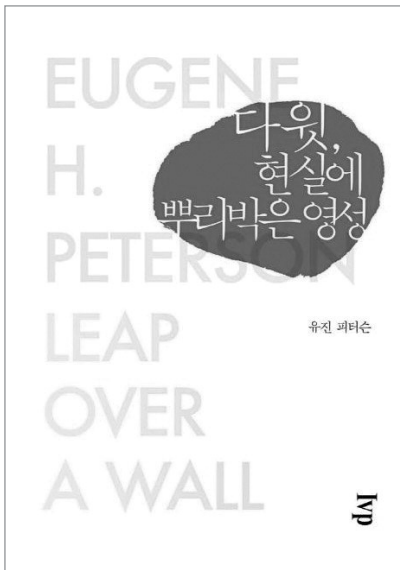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에는 NGO 더멋진세상 안내데스크가 설치된다.

NGO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 소속 국제 NGO 단체이다. 현재 23개국 27개 지역에서 '더 멋진 마을 조성', '취약계층, 어린이 생명 살리기', '긴급구호, 조기복구', '난민 지원' 등 총체적 선교를 실시하고 있다.



책 읽어주는 목사

진정한 신앙을 배우다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 저 | 한국기독교학회출판부
| 13,000원

유진 피터슨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은 올해로 출간된 지 20년이 되는 책이다. 트렌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한 주만

지나도 베스트셀러 Top 10이 전부 바뀌기도 하는데 이 책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한 사람을 다듬으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는 양서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저술 동기와 목적이 첫 번째 챕터에서 드러난다. 저자는 다윗의 생애를 하나의 ‘이야기’로 규정하는데, 한 사람의 인격과 영성의 성장에 있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과 영적인 영향력을 강조한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울 수 있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배울 수 있으며,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은 다윗의 이야기, 곧 그의 삶의 흔적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 ‘주어진 일에 대한 태도’를, 엔게디 골짜기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광야를 대하는 신앙’을, 다윗과 밋세바의 관계를 통해 ‘죄에 대처하는 인간의 회개와 겸손’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관념이나 신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실체가 담겨 있다.

어떤 책이든 내가 추천이나 평가를 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을 좋아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덧붙여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첫 번째, 유진 피터슨이 다윗에 대해 해석하는 관점이 독특하다.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가 느꼈을 환희나 비참함, 그가 처한 현실의 무게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뿐 아니라 성경을 보는 남다른 깊이를 통해 평소 간과하고 지나쳤던 부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다윗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 책을 통해 새로운 다윗의 인생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하나 하나에 공감할 수 있다. 저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정, 관대함, 슬픔, 어리석음, 성장, 사랑, 고통 등을 다루고 있다. 주제마다 수천 년 전 인물인 다윗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같은 갈등을 겪고, 같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과 별개로 성경 안에 변치 않는 진리를 담아두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세 번째,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 지극히 현실적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수록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같은 길을 걷고 싶어진다. 일상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예기치 못한 고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성숙함을, 종교가 아닌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인생을 지탱하기 원하는 소원을 품게 된다. 선한 소원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평소 다윗을 좋아하는 예배자들에게 권한다. 또 삶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신앙과 현실의 접점을 찾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추천한다. 이 책을 읽게 될 모든 분들에게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이서진 목사
(CH PLUS공동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전도를 왜 해야 하나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답: “사람이 죽고 사는 상황에서는 부담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 동참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지상명령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유언이다. 성도라면 꼭 해야 하는 일,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은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귀한 일이다.

포스트모던시대 불신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다고 이야기 한다. 둘째, 교회에 몇 번 가봤거나 가까운 지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기독교에 대하여 피상적인 지식이 있다. 셋째, 현대를 살아감에 의하여 심각한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불신자의 세 번째 특징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현대인들 안에 심각한 정서적 소외감이 있다는 것은 도리어 마태

복음 5장에 적힌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가난한 상황’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 어느 것으로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전도는 불신자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제거해야 한다. 소외감을 느끼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감성을 터치하고,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아야 한다. 전도대상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그들에게 평안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전해야 한다.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마 10:16).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주신 지침이다. 이것은 2000년 전 원칙이지만 지금도 지켜야 할 특별한 원칙이다. 전도를 위해서는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신중함이 더욱 필요하다.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예수님처럼 전도대상자들의 연령 혹은 직업을 확인하며 문화적 코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전도대상자들의 필요와 접촉점을 분석한다.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 ‘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등의 질문을 가져야 한다.

셋째, 전도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로 시작한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물을 길러 온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수의 대화로 복음을 설명하신다. 한 여인의 영혼을 위해 긴 시간 대화를 나누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 그 동네를 방문하신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너의 집에 내가 가겠다”고 하셨다. 그때 삭개오는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다는 감동의 응답을 하게 된다.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 관계를 형성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온 친구들은 한 영혼을 위해 여러 명이 함께 고민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그렇지만 친구를 사랑하기에 지붕이 보였고, 그 지붕을 뚫는 열정을 보이게 된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신 것이다.

전도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아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살리는 순간순간의 일이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과 연관된 일이라면 부담을 넘어서야 한다.

오래 전 물에 빠진 사람을 인공호흡으로 살린 적이 있다. 그때 나에게서는 부담이 존재하지 않았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고 사는 상황에서는 부담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구조되어 살아난 분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믿음이며,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의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때 성도로서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성민 목사
(전도사역본부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성도들의 가장 많은 기도제목은 꼽으라고 한다면 건강에 대한 기도일 것입니다. 건강에 관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야고보서에서도 “병든 자가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약 5:14)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어떤 질병이든지 기도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삶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죄를 끊게 되고, 잘못된 습관을 올바르게 교정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병이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영광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을 극복한 이후 에세이를 쓰셨는데 제목이 특이합니다.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Don't waste your cancer)>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래 전에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암으로 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유익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런 경우에는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그것을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둘째, 그것을 저주라고 믿고 선물로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이 아닌 병이 나를 확률로부터 위로를 구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넷째, 죽음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다섯째,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암을 이기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섯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고 암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된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일곱째, 사람들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기보다 자기만의 외로움 속에 숨어버린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덟째, 소망 없는 이들처럼 슬픔에 빠진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아홉째, 이전처럼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볍게 여긴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열 번째,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광을 증거할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당신의 암을 낭비하는 것이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은 죽음병에 걸렸지만 자신의 병을 낭비하지 않고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 이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고 탁월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그에게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뿌리 뽑은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왕하 18:5-6).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는 것은 귀한 칭찬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첫 번째 증거는 그의 조상들이 범했던 우상숭배를 뿌리 뽑은 것입니다. 그의 선조들이 범했던 우상숭배를 뿌리 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예로 모세가 들었던 청동뱀이 보존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청동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고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청동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엄청난 용기와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선조들의 잘못된 행위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했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 버렸으며 아세라 상을 찢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느후스단이라 부르면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왕하 18:3-4).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두 번째 증거는 당시 정치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앗시리아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쪽에서 강대해지고 있었던 앗시리아는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다 흠어버리는 소위 사민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피를 섞어버리는 악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의 과제는 ‘앗시리아의 위협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앗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는 앗시리아의 산헤립 왕의 침공으로 남유다 여러 성읍이 함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앗시리아가 원하는 조공을 바칠 때도 있었습니다.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등 많은 조공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전반적인 기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앗시리아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앗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왕하 18:7).

주전 609년 앗시리아가 유다를 두 번째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앗시리아의 왕이 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이 모욕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유다에게 하락하셨습니다.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기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 받는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는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통치했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놀라운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경고를 끊임없이 히스기야에게 주었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임한다고 해서 왕이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많은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의 조상처럼 우상숭배와 배교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많은 말씀과 경고를 주셨기에 히스기야가 그 땅을 하나님

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놀라움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병이 들었고, 그 병이 왜 죽음에 이르는지를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병에 들었고, 그 병은 죽음으로 가는 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하여 쓰러지지 않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2절).

두 가지 기도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했다는 뜻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와 그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 있게 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했다는 뜻입니다. 온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매우 슬피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젊었기 때문에 생을 일찍 마감하는 것이 슬퍼서, 죽음이 두려워서 슬피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가 슬피 우는 이유가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3절).

이 내용을 언뜻 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의를 내세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라면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슬피 울며 통곡한다 한들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자녀교육의 최종목표는 ‘독립’ 이다!

헬리콥터 부모들의 과하고, 비뚤어진 자식사랑 잘 떠나보내는 부모, 잘 떠나는 자녀가 건강하다

“어머니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을 주고, 아버지는 빛을 준다”(장 파울).

부모란 그런 존재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낳을 때의 괴로움은 다 잊고, 밤낮으로 애쓰며,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닦으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
신다. 그런데 그 사랑이 조금 변질된 위험한 부모들이 있다. 자녀에게 과하고, 비뚤어진 사랑을 주는 부모들이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SKY
캐슬’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부모들이다. 자녀의 명문대 입학에 인생을 올인한 부모뿐이겠는가. 한 케이블 방송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
록’에서는 딸의 회사생활까지 관리해주는 열혈 엄마가 등장했다. 드라마 소재이지 설마 현실에서 그런 부모들이 존재하겠느냐고 생각하면 착각
이다. 드라마보다 더한 부모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진짜 있었던 그 부모들의 과하고 비뚤어진 가짜 사랑이야기를 소개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학교수인 K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
었다.

“강의실에 못 보던 중년 여성이 앉아 있더라
고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더니 자녀 대신 출
석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 지어낸 이
야기 같지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극성 엄마는 군대도 따라간다. 군대에 갓 입
대한 아들이 걱정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
렇다고 집에도 안 가고 훈련소 앞에 있는 모텔
에서 생활하면서 아들이 퇴소할 때까지 하루
두 번씩 부대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것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J(27살)는 그 어린
애들에게까지 교육열을 쏟아 붓는 부모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

“가끔 참 무책임하면서 극성맞은 부모님들
이 계세요. 제가 일하는 어린이집은 6살까지
다니는데 그 어린 애들이 어린이집 끝나자마자
자 태권도, 발레, 수영 학원에 가더라고요. 5살
이 넘도록 기저귀 떼 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학원 보낼 생각만 하더라고요.”

자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주변을 빙빙 도는
부모들을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른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극성스러운 정도로 관심을 쏟
는 부모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의 안전이 걱정돼서
수학여행까지 따라가는 것은 기본이고, 성인
이 된 대학생 자녀의 강의 과목을 대신 짜주거
나 강의에 대리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 지도교수나 총장에게까지 전
화를 걸어 점수를 올려달라고 항의도 한다. 자
녀의 이성교제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자녀의
직업까지 부모가 대신 선택해준다.

L 형제는 진로문제로 고민이 많다. 자신은
취업을 원하는데 부모님은 공무원 시험을 준
비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중소기업 취업을 탐탁지 않아 하
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계

최고’ 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시
더라고요.”

그 부모들은 정작 중요한 걸 아무것도 모르
고 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자녀는 사회화가 되지 않는
다.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녀들의 비전수
립, 블루오션 발견, 미래세대 적응을 방해한다.

동서고금 막론하는 비뚤어진 자식사랑

자식을 향한 비뚤어진 사랑은 비단 우리나
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극성 엄마들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한다.

전문가 기고 - 이 시대 부모들에게

그래야 아이들이 마음껏 날갯짓 할 수 있다



채선기 소장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교수,
한국다문화상담연구소)

아프리카 속담
에 “한 아이를 키
우려면 온 마을
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
이 실감나는 요
즘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다. 언
제부터인가 우리
들은 내 아이만
키워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온
마을을 없애가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된
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가르쳐 왔고,
그렇게 배운 세대들이 부모가 되어 그 자식
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을
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사실들과 이야기들

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곤 한다.
얼마 전 성황리에 방영된 드라마 ‘SKY 캐
슬’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드라마
가 현실인지 현실이 드라마인지 모르는 혼돈
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어찌다가
이리 되었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부모로서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었을까? 부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그토록 받고,
교양서적을 끊임없이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부모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 필자는 한 아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작
게나마 그 해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그리하
여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
들이 힘을 내어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
여주고, 부모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안 괜찮은 아들과 아빠의 눈물

언젠가 상담실에 너무나도 잘생기고 똑똑
하게 생긴 남학생이 방문했다. 대부분의 청
소년들이 학교 기관이 아니라 사설 상담소를
방문할 때처럼 엄마 손에 이끌려 상담실 문
을 두드렸다. 상담을 받는 대상이던 그 청소
년은 딱히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눈치가 아
니었다. 그 소년의 엄마는 애가 닳은 표정으
로 아이의 성적부터 생활태도 등을 나열했
다. 소년은 그런 엄마의 말을 많이 들었는지
눈만 깜빡였다. 엄마가 상담실을 나가고 소
년이 처음으로 내게 한 말은 충격적이었다.

상담자인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그
소년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어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
학과 학과는 어디인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행복해 할지를 잘 알고 있다고 했

다. 마치 선생님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서 앞
으로의 인생 계획을 말하는 소년의 모습에서
상담자인 나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 얼
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소년의 말을 끊고
내가 물었다.

“괜찮니?”

예상 못한 나의 물음에 약간 당황한 듯 보
였지만 그 소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러면
안 된다는 듯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또 다시 설명했다.

그렇게 몇 번의 상담을 했다. 얼마 뒤 나는
소년에게 재차 물었다.

“괜찮니?”

쉬면 안 될 듯이 앞으로의 계획만을 향해
가던, 어른들이 원하는 방향과 세상을 너무
나도 잘 안다는 듯 얘기하던 소년이 나의 두
번째 물음에 무너졌다. 안 괜찮단다. 자신은
안 괜찮다고, 힘들다고, 너무 힘든데 왜 아무

인도의 어느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목숨 걸고 부정행위를 했다. 일명 ‘벽 타는 부모’다. 지난 2015년 5층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서로 경쟁하듯 벽을 타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들은 시험 보는 자녀에게 카닝페이퍼를 주려고 목숨 걸고 벽을 타고 올라간 부모들이다.

중국의 에이미 추아 교수(예일대 로스쿨)는 2011년 자신의 두 딸을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자전적 교육 서적 <타이거맘 찬가(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를 펴냈다. 추아 교수는 이 책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행위 리스트 10가지를 열거했다. 학예회 발표, 학예회 발표에 빠지는 것에 대한 불평하기, TV시청과 게임하기, 방과 후 활동 자기가 정하기, A미만 점수 받기, 모든 과목에서 1등이 못 되는 것, 피아노와 바이올린 이외 악기를 연주하는 것 등이다. 강압과 권위를 내세운 추아 교수의 교육법은 특히 둘째 딸에게 비극이 됐다. 둘째 딸이 가족여행지 한복판에서 “엄마가 싫어! 바이올린도 싫고 다 싫어! 엄마는 최악이고 이기적이고 날 위해서 한다는 핑계로 엄마를 위해 다 하는 거 아냐?”라고 절규했다.

자녀를 향한 비뚤어진 사랑은 교육 선진국 미국도 비켜가지 못한다. 지난 3월 미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 명문대 입시비리 사건이 일어났다. 부유층 학부모가 자녀를 아이비리그 등 명문 대학에 입학시키는 조건으로 입시브로커에게 적게는 20만 달러(2억2600만원)에서 많게는 650만 달러(약 75억원)를 건넨 사건이



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배우 펠리시티 허프만(‘위기의 주부들’ 출연)을 비롯해서 대형 로펌과 기업체 CEO 등 연예인과 금융가, 기업가, 법조인 등이 대거 연루돼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성경에도 문제 부모들이 나온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이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으로 악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막지도, 처벌하지도 않았다. 아들들의 악행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방치했다. 나중에서야 아들들을 가르쳐보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아들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결과는 엘

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지엄한 분노와 심판이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훈계하고 잘못에서 돌아키도록 이끌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엘리의 잘못된 자식사랑으로 집안 대대로 슬픔이 임하고, 제사장 직분마저 빼앗겼다.

그 해답은 ‘성경적 부모’

부모들의 맹목적인 사랑과 지나친 간섭은 결코 바람직하거나 정상적이지 않다. 자녀교

육의 최종목표는 독립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성경적인 부모가 그 해답이다. 성경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성경)을 먼저 가르친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6~7).

크리스천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배워야 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크리스천 부모들조차 그 역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걱정된다. 차세대 교사 이민경 자매가 이런 말을 했다.

“시험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 대개 두 부류예요.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거나, 본인이 불안해서 안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같이 교회가지고 하면 시험기간에도 따라오더라고요. 결국 자녀의 신앙성장과 교육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미적분이나 외국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자녀를 잘 떠나보내고, 자녀가 잘 떠나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부모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도 자기에게 힘드냐고 물어봐주지 않느냐며 그 큰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성적에 대한 압박과 입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소년은 그로부터 한참을 울었다.

그 소년은 누가 봐도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상위권에 속해 있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KY 대학을 가고도 남을 성적을 갖고 있었지만 행복해하지 않았다. 아니, 행복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지난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진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 소년이 상담실에 온 이유는 어쩌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인의 성격과 가장 잘 맞는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소년이 내게 울면서 한 말은 그와는 정반대였다.

“나 안 괜찮아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위로 받고 싶어요.”

그 위로를 엄마, 아빠에게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 소년의 아빠 이야기를 해 보겠다. 그는 시골 작은 마을의 형제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 장남도, 막내도 아닌 가운데 몇 번째 자녀로 태어난 그는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공부는 큰형과 작은형 몫이지, 자기 몫이 아니었다. 그래서 밤마다 몰래 소설책에서나 나을법한 이야기처럼 사전을 씹어

먹어가면서 공부했다. 그렇게 SKY 대학에 들어갔다.

학연, 지연, 혈연도 없이 혈혈단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온 그는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죽어라고 공부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했고, 취업했다. 그렇게 힘

들게 공부하면서 다짐했다.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절대로 힘들게 공부시키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었는데 아이가 너무 연약하고, 실수가 잦은 게 탐탁지 않았다. 그래서 안타까웠다. 위로해 주고 싶은데 위로해 주면 나 자빠질까봐 못해주겠더라. 그러면서 그 아빠 역시 눈물을 흘렸다.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위로할 줄 모르는 세상 공동체성 무너진 세계

상담실에 앉아 사례를 접하다 보면 사연만 다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감정과 정서를 받아주는데 민감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음을 느낀다. 아베로 살아온 내가 감정과 정

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다.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가슴에 새겼을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찾고 싶다. 위로를 할 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동체성이 무너진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모인 나 역시 위로받아본 경험이 없고,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강하게 버티며 살아가는 방법을 겨우 배워왔는데 어떻게 자식을 위로할 줄 알겠는가? ‘우리 함께 다같이’라는 공동체성이 무너진 삶 속에서 각개 전투처럼 개별적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자녀의 편안한 자세를 받아줄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부모인 내가 먼저 위로받아야 한다고. 부모인 내가 먼저 ‘우리 함께 다같이’를 외쳐야 한다고. 가식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서 말이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부모라는 정말 크고 아늑한 울타리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고, 마음껏 날갯짓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먼저 위로받고,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다. 내가 먼저 ‘우리 함께 다같이’ 하라고 외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넘겨주고 싶다.

“부모 먼저 위로받고,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다.

부모가 먼저 ‘우리 함께 다같이’ 하라고 외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넘겨주고 싶다.”

성경에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엡 6:4)”는 말씀이 나온다. 기독교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전 온누리교회 '이웃초청예배 러빙유'

바로 그게 사랑이었다. 이웃들을 위한 기도, 섬김, 나눔 무엇 하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장면이 하나도 없었다. 무엇보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자 행복, 그리고 사랑이었다.

지난 5일 대전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 '이웃초청예배 러빙유'(이하 러빙유)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웃 273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알고, 궁금해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큰 기쁨을 만끽했다.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졌다는 이부터 오랜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됐다고 고백하는 이까지 눈물겨운 간증을 토해냈다. 그 가슴 벅찬 감동의 자리에 다녀왔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관심이 곧 전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때문인지 이웃들에게 관심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가 끊임없이 전도를 독려하고,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난 5일 대전 온누리교회 이웃초청예배 러빙유가 막 오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

러빙유는 참으로 뜻 깊은 예배였다.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동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러빙유 참가소감을 묻는 설문조사에 러빙유 참가자 82명이 참여했는데 '기독교에 흥미가 생겼다(28명)', '성경 메시지에 마음이 끌린다(28명)', '구원자 예수님을 믿겠다(4명)' 등 긍정적인 응답을 한 참가자가 60명(73.1%)이었고 이후 이런 모임이 있다면 참석하겠다고 답변한 참가자도 무려 72명(87.8%)이나 됐다.

"넌 내 아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란다"

게스트들의 공연부터가 감동이었다.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 집사의 맑고 청량한 플루트 연주가 참가자들에게 진한 여운과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휘슬로 연주할 때는 그 소리가 애절하다 못해 절절했다. 듣고 있는 참가자들 모두가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다. 연주를 마친 뒤에는 송 집사의 간증이 이어졌다. 송 집사가 어린 시절 미국에서 경험했던 일을 고백했다. 송 집사는 다니던 학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에 시달렸다. 학교폭력을 당할 때마다 화장실에 숨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나무야 나는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 집사의 진솔하고 담담한 고백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송 집사의 고백을 들은 참가자들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송 집사 간증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넌 내 아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란다."

가슴을 울리는 이 한 마디에 참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교회를 떠나 있던 최승호 형제도 그랬다.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이 이웃초청예배 '러빙유'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큰 기쁨을 만끽했다.

"삶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떠나 있었는데 오늘 송솔나무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어요. 다시 교회에 나갈 거예요."

김상수 목사(대전 온누리교회 담당)의 메시지도 큰 감동을 선물했다. 이날 김 목사는 '영혼의 골든타임'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한 순간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혼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영혼의 골든타임에 우리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고, 궁금해 하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러빙유가 이토록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몇 달 전부터 기도로 러빙유를 준비했다. 전도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좋은 예수님을 선물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자 끊임없이 부름받았다. 그 기도의 응답이 러빙유 참가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궁금해 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열매로 맺혔다.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국인 부봉평 자매는 친구 쯔쨌와 마이어웨이를 초청했다. 부봉평 자매는 중국에 있을 때부터 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 친구들을 위한 기도는 물론이고 만날 때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열심히 소개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몹시 아팠다.

"쯔쨌와 마이어웨이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중국에 있는 교회에도 함께 갔어요. 그런데도 친구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친구들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어느 날 쯔쨌와 마이어웨이가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봉평 자매는 러빙유가 소중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두 친구가 러빙유에 참석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 기도가 응답됐다. 교회에 흥미가 없던 두 친구가 러빙유에 참석했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쯔쨌 형제는 러빙유에 참여하면서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고백했다.

"평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러빙유에 참석하면서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일 때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대전 온누리교회가 준비해준 러빙유 덕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마이어웨이 형제도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

"사실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러빙유에 참석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호감이 생겼어요. 저희를 위해서 예배까지 준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김현정 자매(대전 온누리교회)는 후배 김선중 형제를 초청했다. 김선중 형제는 취업준비생이다. 김현정 자매는 김선중 형제를 교회에 초대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웠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김선중 형제에게 부담을 줄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김선중 형제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지금 선중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취업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선중이가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주 연락하고 만났어요."

김현정 자매의 진심이 통했다. 김선중 형제가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어려움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교회에 잘 정착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러빙유에 참가해서 오랜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했다고 고백한 참가자도 있었다. 이승수 성도(대전 온누리교회)가 초청한 박영진 형제가 그 주인공이다. 박영진 형제는 늘 마음이 공허했다. 결혼을 하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배우자를 만나려고 수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배우자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여행, 운동, 미술, 독서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마저도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에 와서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다.

"제가 마음이 공허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김상수 목사는 이웃초청예배 러빙유를 마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러빙유를 통해서 전도에 큰 열정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대전 온누리교회가 전도에 더욱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눔은 정말 큰 행복이자 기쁨입니다”

5월 19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지구촌 이웃들의 가장 친한 친구 NGO 더멋진세상이 오는 5월 19일(주일) 정기약정 행사를 실시한다. 정기약정 행사를 앞두고 만난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NGO 더멋진세상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후원자들 덕분에 재난과 재해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NGO 더멋진세상의 태동부터 성장 그리고 청사진도 들려줬다. 다음은 김광동 장로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NGO 더멋진세상의 역사가 궁금합니다.

“2010년 8월, 하용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1년 전 동경에서 저녁식사에 초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달만 있으면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인데, 지난 25년 동안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우리는 세상에 베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지구촌에서 재난당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인종, 지역, 이념, 종교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NGO를 하나 설립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 목사님께,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서 일해 왔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NGO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하 목사님께서 정색하면서 “하나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돈도 사람도 다 붙여 주십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삼암월드컵경기장에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 창립 25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슬로건이 바로 ‘더멋진세상’이었습니다. 이 슬로건은 이재훈 목사님의 아이디어였는데 그렇게 해서 NGO 더멋진세상의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러브소나타 서울 본부 사무실에 책상 두 개를 얻어 2010년 12월 29일 정식 NGO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해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당장 구호활동을 하라고 하셔서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30명과 떠난 긴급구호가 NGO 더멋진세상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벌써 NGO 더멋진세상을 창립한지 8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본부 14명, 해외지사 65명의 스태프들이 23개국 27지역에서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NGO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23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저희가 가고 싶어서 간 적이 없습니다. 지구촌 어디에선가 도움 요청이 와서 가보면 늘 그곳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



사역지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김광동 장로의 가장 큰 기쁨이다.

니다.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리서치를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현지 마을을 돌아보는데 너무나도 가난하고 접근이 어려워서 ‘여기서는 사역을 진행하기 정말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니비사우를 떠나기 전날 현지에서 우리 일행을 안내해줬던 주지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크리스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 이 지역을 돌봐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제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이동진료차량 운영을 위해서 방문했는데 문득 수도가 아닌 평범한 주민들이 사는 곳이 궁금해서 한 마을에 갔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흙으로 지은 허물어져가는 건물에서 주민 10여 명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마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발걸음을 그 마을까지 이끈 것이었습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외교관 생활을 중앙아프리카에서 시작했고,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고, 프랑스, 제네바, 벨기에 등 북유럽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 경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북유럽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NGO 더멋진세상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역은 ‘더 멋진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지는 UN회원국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마을입니다. 더 멋진 마을 조성사업은 가난하고 열악한 마을을 총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 아이들 세 명 중 한 명이 다섯 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곳에 우물을 파고, 보건소를 세우고, 말라리아 예방 사업을 하면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면 학교가 필요해집니다. 그럼 학교를 세웁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면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현지에 농업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농지를 개발하고, 먹을 것을 만들어 냅니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먹고 살 수 있다고 인간다운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증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NGO 더멋진세상은 특산물, 봉제, 축산 등 다양한 기술도 가르칩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통틀어 ‘더 멋진 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지역개발 모델은 그 나라 지도자들에게 정책대안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NGO 더멋진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NGO입니다. 한 마을을 입양해서 5~10년 동안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키고, 잘 사는 마을로 탈바꿈 하도록 돕습니다. 헌신적으로 주민들을 돕다보면 주민들

이 우리에게 “당신들은 왜 잘 사는 한국에서 이 마을에 와서 고생을 하시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많아서 당 신들에게 나눠주려고 왔습니다.”

주민들을 진심으로 섬기다 보면 열매를 맺습니다. 주민들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해 달라”며 교회를 지어 달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몽골의 미전도 종족에게 이런 식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네팔에서도 2015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네팔 고레다라 마을 가옥 82채가 무너졌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집, 학교, 교회를 지어주고 마을을 회복시켰습니다. 고레다라 마을은 대대로 힌두교를 믿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1%도 안됐는데 지금은 35%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난민케어입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요르단,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과 우간다 북부에 있는 남수단 난민들을 꾸준히 섬겨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지원에 집중할 것입니다. 유니세프, 유엔세계식량계획, 유엔난민기구 등과 협력해서 3만 명 규모의 정착촌 건설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힘을 다할 계획입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후원금을 종자돈으로 정부 부처, 국제 NGO와 매칭펀드를 받아 연간 8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살림을 잘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국내 유명한 대부분의 NGO 단체 기관운영비가 30%정도입니다. 가장 적게 드는 단체가 20%인데 NGO 더멋진세상은 기관운영비가 8.5%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 국내외 모든 스태프들이 헌신적으로 섬긴 덕분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나, 우리 가족, 우리 나라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면서 나누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기쁨에 여러분도 동참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곧 선교입니다.”

3.1운동과 한국교회: 개혁신학적 성찰(VII)

3.1독립운동의 신학적 의미

한국 교회 민족 교회가 됨 ... 독립운동 신앙운동으로 파악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학대학
원 설립원장)

당시 1.5%의 기독교인이 3.1운동에선 38%의 역할을 하였다. 3.1운동에 참가함으로써 한국 교회는 서양의 선교사 종교에서 민족의 종교가 되었다. 3.1운동을 계기로 한국 교회(장로교와 감리교)는 민족에게 자주 독립 정신과 애국

심을 더욱 고취시켰다. 한국 교회는 민족주의와 결합함으로써 더 이상 서양인의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망국의 슬픔을 받아들이고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소망처의 역할을 하였다. 한국 교회는 애국의 열의와 함께 국권을 빼앗긴 상실한 백성의 유일한 소속처가 되었다.

초창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민족 사랑을 신앙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교인들을 지도해 나갔다. 한국 교회는 3.1독립운동을 정치적 동기보다는 신앙적 차원에서 한결같이 민족 구원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교회 강단은 신자들에게 애국적이며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원천이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강단 설교를 통하여 구약성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자 모세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목동 다윗의 민족 구원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미션학교 학생들은 채플 설교를 통해서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민족 의식과 역사의식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다. 신약성경에서도 바울의 증언을 예로 들면서 민족구원 신앙이 성경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장로교와 감리교 지도자들은 3.1운동의 계획에 처음부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행에 있어서 교회의 전국적 조직을 잘 동원하였다. 일본 총독부와 경찰들도 기독교인들의 깊이 뿌리박힌 독립정신을 제거할 수 없으며 이들을 동화(同化)하여 선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학생 및 기독교인들과 같은 외래사상에 접촉한 자들은 그들의 머리 속에서 독립사상이 너무 깊이 박혀 있으므로 평생 동안 그것을 빼버릴 수는 없으며 장차 이들을 동화시켜 선량한 신민으로 만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한국 교회의 독립운동은 일본 총독부와와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교육이라는 형태로 바뀌어갔다. 학생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공부에 열중했다. 교육이야말로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교편을 잡고 있었던 중앙학원의 창립자 임영신은 교육이야말로 “해방자이며 소망의 구원자”라고 강조하였다. 당시 미국 기독교 연합회는 “예수 믿는다는 말과 독립시위에 참여했다는 말이 지금 한국에서는 동의어가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늘의 시민권과 땅의 시민권을 정치적 독립성 주장으로 선언

3.1독립운동은 기독교 신자들이 하늘의 시민권만이 아니라 땅의 시민권을 소유한 것을 선언한 권리장전이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 두 시민권은 분리되지 않고 통전적으로 수행된다. 선교사들은 당시에 한국 교회가 일본 총독부 정치에 순응할 것과 정교분리론을 선언했으나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민족의 주권이 없는 백성에게는 미국과 같은 독립국가에서 논할 수 있는 정교분리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국 민족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 없이는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갖는 땅의 시민권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료히 선언하였다. 이는 개혁신학적으로 타당한 견해였다. 개혁신학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국민으로서의 축복과 번영과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혁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은 각 민족과 국가에 그들의 살 땅과 거주 권리를 주셨다고 믿는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행 17:26).

국권과 국적이 없는 민족이란 지금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Kurd)과 같이 떠돌이 군중에 불과한 것이다. 쿠르드족에게 거처와 국가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들은 터키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아직도 국가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후 유대인들은 추방되어 근 2천년 동안 나라 없이 방랑생활을 해왔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히틀러 정권에 의하여 6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질식되어 사라졌다. 그러나 1948년 오스만 제국(Osman Empire)이 무너지고 대영제국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땅의 시민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민족교회로서의 한국 교회의 급속한 성장

한국 교회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그 결과로 한국 교회는 일제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애국적인 기구와 단체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민족의 교회로 간주되게 되었다. 3.1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민족의 운명과 동일한 행로(行路)를 가며 애국의 열이 담긴 단체요, 모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3.1운동 후 사이토 세 총독부의 문화통치 시작으로 한국 교회는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고, 일반 시민들이 몰려오게 되었다. 여태까지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막았던 미(未)신자 부모들도 이제는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젊은 이들이 학교에 몰려옴과 함께 교회에도 쇄도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는 급속히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다. 1920~1921년의 통계는 교인 출석과 헌금액수가 놀랄만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 평양의 장로교 선교부의 보고서는 다음 같이 인상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

“새벽 해 뜨기 한 시간 전에 아침마다 기도회, 예배, 교회마다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장면이다. 중앙교회의 이런 어느 아침 집회에 2천명 이상이 모였는데 이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였다. 이 도시에서는 어느 교회나 상당히 많은 회중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 주일마다 교회는 한 번 이상 아이들과 어른으로 차 넘쳤고, 이들의 대부분은 새로 믿으려는 사람들이거나 교인들이다.”

감리교 선교사 왓슨(A. W. Wasson)은 이를 ‘급속한 성장의 제 2기’라고 부르면서 다음 같이 당시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1910년 이후로 남감리교회의 교인들과 원입인의 전체수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에는 이 곡선이 급속히 다시 위로 올라갔다. 이리하여 5년 내에 102%의 교인이 증가되었다.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역시 1920년에 성장 시기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고, 남감리회가 그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교회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 체질화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남·북장로교와 남

감리교 선교부가 선교정책 및 방법으로 네비우스 정책(Nevius policy)으로 불리는 ‘자급, 자치, 자전(Self-supporting, self-governing, self-propagating)’의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외국선교부의 도움 없이 한국 교회는 재정적 독립, 자치적 운영, 스스로 복음 전파함으로써 선교부로부터 독립하여 외국인의 교회 아닌 한국인의 교회를 세워나갔다. 선교사들은 자립하는 독립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십일조를 강조하여 많은 신자들이 십일조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십일조는 한국 교회 재정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는 재정적으로 선교부로부터 독립하게 됨에 따라 이미 1919년 전에 장로교회는 노회와 총회를 조직하였다. 감리교회에서도 지방회 연회 등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자치원칙에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교회는 민주주의 훈련장이 되었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인들은 투표를 통해서 대표(장로, 집사)를 선출하고 목회자를 초빙하였다. 교회는 민주주의 원리 중 대의제(代議制)를 채택해 지역대표제로 전국적 조직을 하나로 묶는 게 가능했다. 당회, 시찰회, 노회, 총회 순으로 전국조직이 상순 구조로 결속됐다. 일제하에서 모든 정치단체가 해산되었음으로 교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효과적인 통신했다. 교회의 전국적인 조직망은 3.1운동 거사(擧事)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 3.1운동 후에는 더 많은 새로운 개종자들과 더불어 많은 교인들과 한국인들을 민주주의 절차인 다수자 의견 선택의 원칙으로 훈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훈련장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 일본 총독부는 식민통치에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전체주의적 방식을 실행했으나 한국 교회는 정반대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민주주의 절차를 가르쳤다. 그리하여 교회는 일본 총독부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미기독교 연합회 동양관계 위원회 보고서는 “장로교 조직은 그 자치기관의 통일, 그리고 감리교 조직은 그 통일과 강대국인 외국교회 기관과의 첨가된 관련성 때문에 일본 총독부의 귀찮은 존재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945년 일제가 무너지고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 과거 조선왕조나 대한제국을 수립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운 것은 초대 공화국 지도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 훈련에서 나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교회 내에서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세대교체

3.1운동 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새 총독으로 부임하고 질서가 회복된 후 교회 활동에 제한이 어느 정도 풀린 후에 한국 교회에 새 신자들 특히 젊은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3.1운동 후에는 한국 교회 내에서 주도권이 어린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이양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젊은 세대들이 애국심과 용기를 가지고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들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젊은이들은 사회전체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교회 내에서도 위상이 높아지고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교회운영도 연장자에 대한 무조건 순종보다는 설득과 다수지배의 민주주의 원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교회의 지도원리가 유교적 권위주의 지배에서 민주주의 원리로 변하게 되었다. 1914년부터 1920년까지 황해도 개성 송도고 3대 교장을 지낸 왓슨(A. W. Wasson; 한국명 왕영덕) 선교사(미 남감리회 선교부)는 이러한 교회 지도 원리의 변화에 관하여 다음 같이 보고하고 있다.

“3.1운동의 수행에 있어서 학생들과 젊은이들에 의해서 이룩된 그들의 뛰어난 역할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새로운 위치를 획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영도력을 연장자의 손에 있게 한 옛날의 유교적 질서를 바꾸어 놓았다.”

3.1운동 전에는 교회에 주로 노인과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몰려 왔다. 이들 젊은이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왔고 더러는 양반 가정에서 왔다. 평양 지역 필립스(Charles. L. Phillips) 선교사는 다음 같이 보고하고 있다.

“이곳 근처에 있는 지방 교회를 방문하면 누구나 모든 예배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는다. 나는 최근에 시골에 있는 보통 정도 되는 교회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3백 명이 참석하였고 이중에서 절반 이상이 2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라고 믿어졌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그들은 헌금을 드린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곳에서도 이런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 와서 교회 사역자의 월급을 지급하여 일반적으로 교회를 자급자족하는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을 보았다.”

세계평화 정신 선언

3.1독립선언문이 비기독교인(최남선)에 의하여 쓰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선언문의 정신과 내용이 기독교 진리와 정신과 사회 이념에 일치한 것은 놀랄만한 사실이다. 선언문 내용은 기초한 자들이 선교초기부터 교회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 발간한 기독교 신문들과 잡지들과 교회 교육기관들이 부르짖어온 글과 강연들을 종합한 총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선언문의 평화정신은 예수의 산상설교의 평화 사상에 접근하고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이것은 일반인들의 양심에도 하나님의 일반은총으로 심어주신 평화개념이 있기 때문이

다. 독립선언서는 민족의 원수인 일본을 정죄하기보다는 뉘우침을 촉구하고 양심과 정의와 공의에 호소하고 세계와 아시아의 새 질서를 논의하고, 이웃 백성으로서 우의와 협력과 공존공영을 역설하고 있다. 이번 3.1운동 백주년을 맞이하여 ‘식민지배 사죄’를 표명한 일(日) 지식인 226명의 성명을 이끈 도쿄대 명예교수 와다 하루키는 2019년 2월 다음 같이 피력하였다.

“1919년의 3.1운동 선언문을 다시 읽어보고 감명을 받았다. 3.1운동은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침략자를 설득하고자 했다. 중국의 5.4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경직은 그의 스승 이승훈처럼 모두를 품

도로 하야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 하라.”

당시에 애국지사 박용만을 비롯한 무장혁명 세력들은 잔인한 유혈폭력을 사용하여 일제(日帝) 강점(强占)의 종식을 꾀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권 상실의 식민지 백성이 그러한 무장혁명을 통하여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성공한 일이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는 당시 일제의 경찰, 헌병, 군인들이 저지른 군국주의적 잔악행위와 폭악성을 비판하면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천명한 것은 성경적 평화주의 사상에 일치하는 것이었다. 3.1운동을 모의할 때 방법에 있어서 다수인들은 한결같이 살육을 주장했으나 천도교주 손병희는 “남을 살육하느니보다 우리가 죽기로

의 정신이 되었다. 이러한 비폭력 저항 정신은 김선주를 대표로 하는 기독교 민족대표들의 입장을 독립선언보다는 독립청원이라고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김선주의 법정 진술에서 드러나고 있다. ‘3.1운동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한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승훈의 권유를 받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고국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권고임을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결과”라고 소회했다. “손병희 외 31인과 독립선언한 일이 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 같이 답변했다.

“독립선언 한 것은 알지 못하며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에 조선독립을 허락하여 달라는 것을 청원한다 하므로 나도 이름을 낸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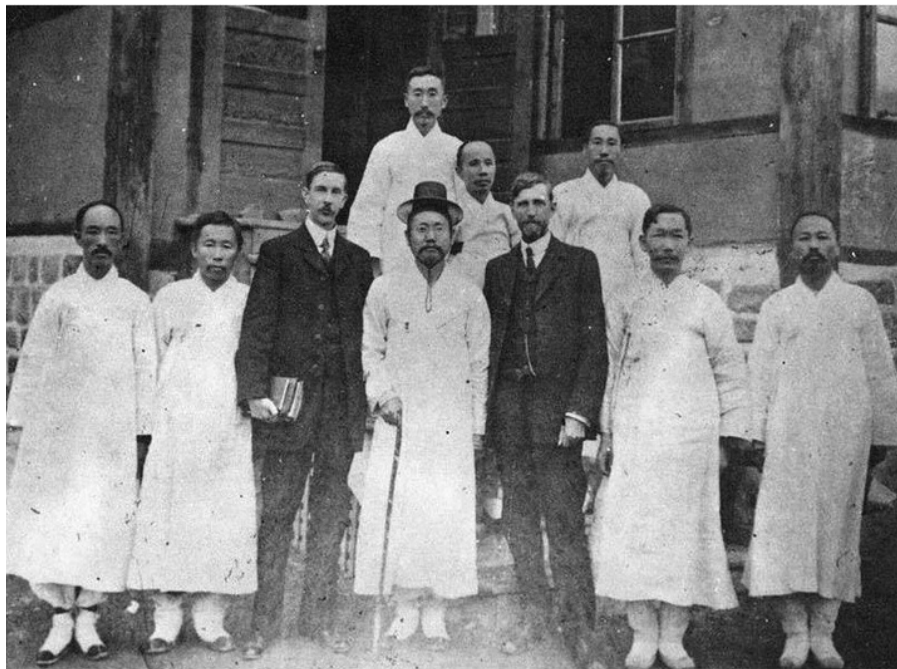
“조선독립선언이 발표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김선주는 다음 같이 답변했다.

“나는 국민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 생각한 일은 없다. 청원하는 것만을 위하여 청원하는 것은 어린 아해가 아버지에게 분가하는 문권(文券)을 내달라고 의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허락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김선주가 경성 복심법원에서 무죄 언도를 받은 사건에 대한 해석은 ‘법정 비검’으로써가 아니라 그의 경건주의 신앙 유형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그는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3년간 옥고를 치렀다. 김선주는 주초(酒草) 반대하는 설교를 적극 설파해서 주초법에 걸려 징역을 살았다. 당시 일제는 한국인의 정신과 신체를 해체할 비윤리적 시책으로 주초(酒草) 장려 정책을 펼쳤다. 주초세가 조선총독부 조세 수입의 48%에 육박하기도 했다. 총독부가 예산 투입해 아편을 재배하고 국가기관인 전매청에서 팔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주초반대 설교했다는 것은 그의 경건주의적 복음신앙의 담대한 표현으로 그가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29년에는 안동 사경회에서 당시 겨레의 고난을 이야기하며 말세를 설교하였다고 검거되어 20여일의 옥고를 치룬 일도 있었다. 김선주에게는 일관된 신앙의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33인 민족 대표 중 독립선언을 주장한 대표들은 이승훈, 신석구, 오화영 등 5명, 독립청원을 주장한 대표들은 김선주, 양전백, 김창준, 정준수 등 7명, 함태영은 둘 다 수용, 현상윤 등 10명은 입장 불명이었다. 독립청원론은 일본 지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기독교의 입장이었고, 독립선언론은 일본 지배를 부정하는 입장이므로 일본의 허락 여부는 의미가 없었다. 독립청원론은 총독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고자하는 취지에서 나왔고 이에는 평화로운 방법을 천명했으나, 독립선언론은 일본 지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격한 투쟁을 천명하였다. 독립청원론은 현실론이었고, 독립선언론은 이상론으로 방법상의 차이였지 민족독립을 위하여 행동을 하는 것에는 일치했다. 어느 쪽의 입장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함태영이 둘 다 수용한 것처럼 각자가 가진 신념대로 서로 존중하며 독립운동을 위하여 협력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계속)



3.1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 김선주 목사와 선교사들. 평양 장대현교회 앞에서.

고 화해와 평화를 염원했다. 한경직은 종교계 노벨상인 템플턴상 받을 때도 상금을 잠깐 갖고 있다가 다 내놓으면서 북한 동포 돕는데 쓰라고 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수준은 높았다.

비폭력적 저항 운동: 평화적 시민 저항운동

독립선언문이 너무 나약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일으킬 힘이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자들도 있다. 하지만 33인 민족 대표들은 총칼이 없는 가련한 백성들이 잔인한 일제 헌병 경찰의 총칼에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비폭력적 저항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그 내용은 독립선언서 공약 3장에 나타나 있다.

“一.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此舉(차거)는 正義(정의), 人道(인도), 生存(생존), 尊榮(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이니, 尙(오직) 自由的(자유적) 精神(정신)을 發揮(발휘)할 것이요,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進走(일주)하지 말라. 一. 最後(최후)의 一人(일인)까지, 最後(최후)의 一刻(일각)까지 民族(민족)의 正當(정당)한 意思(의사)를 快(쾌)히 發表(발표)하라. 一. 一切(일체)의 行動(행동)은 가장 秩序(질서)를 尊重(존중)하여, 吾人(오인)의 主張(주장)과 態度(태

항거하여 대의를 세움만 같지 못하다”고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비폭력의 혁명이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영광스러운 사적(史蹟)이 된 것이다. 그런데 비폭력 저항 정신은 천도교 사상이 아니었다. 동학의 교조 수운(水雲) 최재우의 안심가에는 “내가 또한 신선(神仙)되어, 비상(飛上)천(天)한다 해도, 개 같은 왜적 놈을 하느님께 조화 받아 일야 간에 소멸하고…”라는 내용이 있으며, 그 교도들은 “개 같은 왜놈들 우리의 원수로다. 기왕의 임진 그 시부터 개 같은 놈들, 한 칼로 대보단(大報壇)에 제하여, 무궁의 행복을 누리리로다”라며 저주하였다. 그러나 월남 이상재 선생(1850~1927)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성경 말씀을 지도 이념으로 가르쳤다. 영계(靈溪) 김선주(1869~1935)는 수감 중 검사의 심문을 받았을 때 “독립 자영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금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나는 형에게서 분리하여 독립 자영을 하겠다고 요구함이지요, 결코 하등의 반항심으로 요구함이 아닌즉 결코 중대한 죄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요.”

비폭력 저항 운동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합치되며, 기독교 전통에 일치한다. 기독교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켜 중국의 5.4운동의 정신이 되었고, 인도의 간디가 4월 5일부터 시작되었던 비폭력 저항운동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가정예배를 생활화하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가정예배 양식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같이
기도		말은 이
성경봉독	눅 9:51, 눅 11:9	다같이
설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말은 이
말씀과 일상 나누기		다같이
기도제목 나눔과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찬송가 569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여는 말

한 소녀가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 앞에 두 갈래로 갈라진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왼쪽으로 가야 할까,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한 걸음도 못 가고 있는 소녀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소녀는 자기 앞에서 있는 나무 위를 올려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 다. 그 고양이가 소녀에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소녀는 고양이가 던진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러자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어디로든 갈 테니까.”

본문

예수님도 이 소녀처럼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소녀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 다. 이것을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

심’ 한 것입니다. 만일 고양이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데요?” 물었다면 예수님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입니 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보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였어요. 이것이 소녀와 예수님의 차이 였습니 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닮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수님 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찾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구한

것을 바로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찾는 것을 바로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 주실 것이고, 내일 찾을 것이고, 내일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두드리는 것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뜻 입니 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소중한 선물일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나 아직 주신 것은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나 아직 찾은 것은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나 아직 열린 것은 아니랍니다. 아직은 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두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실 것을 믿고, 찾을 것을 믿고, 열릴 것을 믿기 때문이랍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소중한 선물일수록,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맺는 말

우리 가정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한화수 목사
(동작공동체)

가정예배 상담소

《엄마, 아빠 가정예배 안 드려요?》 저자 백흥영 목사



백흥영 목사
(공명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정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가정예배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

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정예배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가정예배를 싫어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매일같이 행복하지 않은 가정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 다. 오죽하면 자신은 절대 가정예배를 드리

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고 합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이라면 가정예배는 10~15분이면 충분합니다. 설교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그림책 한권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충

분합니다. 가정예배는 주일식 교육이 아닙니다. ‘숙제를 잘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같은 삶의 적용을 위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성경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야기를 나눴다면 마무리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질문하면 좋습니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질문을 생각해도

관찰합니다.”

부모의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예배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일상의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부부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흔히들 배우자의 단점과 습관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냐

며 싸우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려고 결혼한 게 맞습니다. 배우자는 서로 돕는 존재이자 서로의 배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회복도 필요합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데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좋아할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들은 퇴근하고 30분 동안 자녀들과 몸으로 놀아주고 가정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이 아빠와 가정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엄마들은 일상에서의 감정을 가정예배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됩니다. 훈육은 훈육을 위한 시간에만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주 하면 좋습니다.

비가 올 때면 “하나님이 오늘은 비를 많이 내려주시는구나”,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구나”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미션디모데 ‘2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 세미나

목회자, 온누리교회 리더십 등 255명 참석

지난 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영성에 대해 살펴보는 아주 뜻 깊은 세미나가 열렸다. 미션디모데 ‘2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 세미나가 바로 그것. 목회자와 온누리교회 리더십(장로, 권사, 순장 등)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속화된 유럽 교계 속에서 초대교회와 위그노(프랑스 개신교도를 일컫는 말) 전통을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미션디모데를 소개했다. 미션디모데 대표 다니엘 목사, 부대표 제레미 목사, 방선기 목사(직장사역연합 대표)가 미션디모데의 역사와 성격, 목회방향 등을 설명했다.

다니엘 목사는 “미션디모데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점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며 행하는 것”이라며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고 성장시킬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공동체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 세미나에서 다니엘 목사(미션디모데 대표)가 미션디모데의 목회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몽식 목사(주향한교회)는 “서구인들은 무슨 일에 앞서 전략이나 비전, 계획 등을 세우기 마련인데 미션디모데는 오로지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를 이

끌어나간다고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에 미션디모데의 공동체 영성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S브릿지 창립 8주년 기념예배 ‘최고의 선물’

5월 19일 서빙고 두란노홀

S브릿지공동체 창립 8주년 기념예배 ‘최고의 선물’을 5월 19일(주일) 오후 1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드린다. 최고의 선물은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다. 강미향 목사가 설교하고, 프누마 발레단, 추상미 감독, 플레로마 3중주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S브릿지공동체 지체들은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면서 매주 주일 중보기도와 다락방별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 복음전문 교육을 받고, 복음팔찌도 만들었다. 전도대상자들에게 편지도 보낸다. 현재 전도대상자 120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상담센터 창립 20주년 기념강연회

서빙고 온누리교회 상담센터 창립 20주년 기념강연회가 5월 17일과 24일 오후 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린다. 5월 17일 김용태 소장(초월상담연구소)이 ‘하나님의 치유: 죄인의 원리’, 5월 24일 유영권 교수(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과)가 ‘기독교 상담자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이메일(lsy1227ysl@hotmail.com)로 하고, 회비는 강의 당 1만 원이다.

문의: 02-793-2997

온누리 아트비전 5월 정기전

온누리 아트비전이 6월 2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층 카페와 양재 온누리교회 햇빛화관 1층 원형카페에서 5월 정기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아트비전 회원들이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인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를 묵상하고 표현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최은정 팀장(아트비전)은 “아트비전 소속 미술인 27명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반석 선교사의 기도제목

- 중동 F국에서 사역 중이던 주반석 선교사는 2018년 11월 12일 췌장암을 발견했다. 현지에서는 수술이 어려워 2018년 11월 14일부터 국내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다.
- 췌장암이 완전히 치유되어 하루 빨리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 중동 F국에 남아 있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 중동 F국 교회들의 여름집회와 제자훈련이 잘 진행되도록
- 중동 F국 교회 리더들이 다른 종족들을 위해 더욱 헌신하도록

올해 스리랑카 아웃리치 전면 취소

추가 테러, 종교 분쟁, 소요 발생 가능성

온누리교회는 지난달 21일(주일) 발생한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여파를 고려해서 올해 스리랑카 아웃리치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도 지난달 23일(화) 스리랑카를 여행자제국가로 지정했다. 2000선교본부

는 “스리랑카에서 추가 테러, 종교 분쟁, 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올해 스리랑카 아웃리치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문의: 02-795-9085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재정국 팀장 간사 모집

안수집사 이상, 관련 업무 경험자

온누리교회 재정국 팀장 간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온누리교회 안수집사로, 회계업무에 능통하고 금융기관 혹은 기업 재무관리 유경험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신앙간증문 포함)이다. 접수는 이메일(changk58@onnuri.org)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647

‘도자기 힐링 타임’ 수강생 모집

양재 상담실에서 ‘도자기 힐링 타임-빛을 담은 그릇’ 수강생을 모집한다. 도자기 힐링 타임은 6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양재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나를 빛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너에게 필요한 성령님의 소중한 사랑, 우리의 소망을 담은 예수님의 절그릇 사랑, 꺼지지 않는 촛대 빛기 등의 주제로 5주 동안 이어진다. 참가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회비는 7만 원. 문의: 02-570-7536

창조신앙 아카데미 개강

창조신앙 아카데미가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40분 EM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창조신앙 아카데미에서는 격변모델과 판구조론/대홍수 심판 이전 장수의 비밀, 대홍수의 기념비 그랜드캐년과 격변의 현장 St. 헬렌산/공룡의 신비, 방사성 동위원소와 연대측정/거대 우주와 우주의 연대 및 UFO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문의: 010-7292-2349



시즈오카 기 · 도 · 제 · 목

- 5월 13일(월)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집회가 일본 영적 부흥 통로가 되도록
- 5월 14일(화) 봉사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일정 되기를
- 5월 15일(수) 포럼과 가스펠나이트를 축복하사 참 연합의 기쁨을 누리도록
- 5월 16일(목) 모든 봉사자, 스태프, 출연자들이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 5월 17일(금) 한국 봉사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 5월 18일(토) 결신자들을 위한 후속모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 5월 19일(주일) 220개 시즈오카 교회에 부흥과 연합의 기쁨이 넘치도록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5348	정성오	송파A	1135382	정해운	여호수아	1135410	양호전	마포
1135349	나윤정	강남B	1135383	노응수	도곡	1135411	정혜진	신용산
1135350	신재균	SNS	1135384	신은영	여호수아	1135415	김영미	S브릿지
1135351	허 루슬란	온누리미션	1135385	김호경	여호수아	1135416	신지현	분당B
1135352	노미란	요셉	1135386	박유진	여호수아	1135417	박완석	수원 남누리
1135358	조아라	양재	1135387	홍인석	대전 드림스	1135418	김남훈	부천 화평
1135359	이성주	강촌	1135389	백설화	대전 동누리	1135419	안성필	인천Web
1135360	박영근	수원 북누리	1135391	조인형	대전 동누리	1135420	유승우	인천Web
1135363	윤단비	요셉	1135392	임수진	양재	1135421	오정자	분당A
1135364	지유라	요셉	1135393	윤태호	양재	1135422	이지연	강남A
1135365	한용태	요셉	1135394	김민을	대전 드림스	1135423	이하영	SNS
1135366	장보경	수원 북누리	1135395	정수진	대전 드림스	1135424	류선우	SNS
1135367	박소영	강동 말씀	1135396	이세경	대전 드림스	1135425	윤지현	SNS
1135368	임해창	서초A	1135397	황성혜	성북	1135426	조은혜	SNS
1135369	박선정	부천 화평	1135398	김민성	여의도	1135427	임은빈	SNS
1135370	박상영	인천 믿음	1135400	임승남	강남A	1135428	안병희	SNS
1135371	김지혜	인천 소망	1135401	서유숙	수원 북누리	1135429	최라현	SNS
1135374	성우경	Bridge33+	1135402	이진숙	수원 북누리	1135430	길현아	SNS
1135375	노현옥	수원 남누리	1135403	조상훈	수원 북누리	1135431	서강훈	SNS
1135376	조현미	서초A	1135404	권혁중	경기A	1135432	강환민	SNS
1135377	조승욱	서초B	1135405	김 경	강남C	1135433	소은실	SNS
1135378	이중혜	양재	1135407	정은혜	서산온누리	1135434	류지현	SNS
1135379	서가연	서초B	1135408	정인혜	서산온누리	1135435	홍서희	SNS
1135380	김혜리	인천 소망	1135409	손종우	Bridge33+	1135436	김민정	SNS

장로칼럼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이동욱 장로
(부천 온누리교회)

요즘 내 모습을 바라보면 늘 시간에 쫓기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경영컨설팅이라는 지식정보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급주의 내 일상은 A사의 경영전략 수립, B사의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 솔루션 설계, C사의 임파워링 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 강의교안 구상 등 바쁘게 흘러간다. 또 나는 부천 온누리교회 신임장로다 보니 공동체, 장례, 세례, 성찬, 차세대, 예수제자학교(JDS) 등 교회 사역도 만만치 않기에 과부하에 걸리기 일쑤다. 이러한 상황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된다. 영적 무기력증이나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에 빠지기 쉬운 적신호라고 한다. 철저한 목표관리가 생활화 되어 있고,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예정에 없는 미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까지 했다. 자기중심의 분주한 일은 효율과 사역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음을 경험하곤 한다.

급격한 변화와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때때로 자신의 영혼 상태를 들여다봐야 한다. 불필요한 걱정거리와 일상에서 조용히 물러나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인생인지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묵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자신을 들여다 볼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한다. “좀

더 높아지자”, “좀 더 인정받자”, “좀 더 갖자”라고 말하며 점점 세상으로 향하게 만든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신실한 예배자였다.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에도 전세가 점점 불리해지자 참모 한 명이 “각하,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자 링컨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게 문제라네”라고 대답했다.

이 시간 조용히 내게 묻는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바라고 있는가?”

그렇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분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승리는 우리 편이 될 것이다. 잠언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해 본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분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말기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다. 때로는 분주하게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 마음의 안테나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지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내 영혼을 감싸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권사칼럼

비워진 그릇

민영혜 권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칠십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나가는 모임마다 건강이 이야기 주제가 된다. 서로의 안색을 살피고, 젊은 시절 같지 않은 컨디션에 맞장구치며 공감대를 쌓는다. 어느 대목에서 치매에 대한 불안이 주제가 되면 이야기는 인생의 덧없음으로 맺어지곤 한다. 세상에서의 모임은 이런 모습이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결론이 다르다. 겉사람은 점점 노쇠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믿음의 비밀을 지닌 성도들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의지와 다짐이 결론이 된다.

100세 시대를 살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교회에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주는 훌륭한 모델이 있다. 내가 아는 권사님은 회갑을 맞이하던 해에 티베트로 날아가 3개월 동안 여러 초등학교를 방문하셨다. 그곳의 어린이들에게 악보 읽는 법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칠순이 넘은 지금은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다.

흔히들 꿈꾸는 노년의 모습은 어떠한가? 전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 혹은 노화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 역시 중요

한 일이지만 그 권사님은 주 안에서 더 진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 오늘도 가방을 꾸리신다. 아직 일을 놓지 못하고 삶의 분주함에 있는 내게 그 권사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신다. 주님의 일에 구경꾼이 되면 자신만의 역사와 기쁨이 없으니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르라고 채근하신다.

그 권사님의 담대한 발걸음 못지않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까이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권사회다. 남양주 권사회에서 장례사역과 차세대를 후원한다. 떡 판매 등의 수익금으로 장례예배를 드릴 때 권사회 이름으로 조의금을 전달하고 가족들을 위로한다. 차세대를 위해서는 몇 명씩 조를 짜 부서별 기도 후원자가 되어준다. 교사들을 격려하고, 차세대 아웃리치 후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차세대를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른다. 권사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장례사역과 차세대 후원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지 기대되기도 한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 때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그릇이 된다. 나 이 둘에 대한 부담과 근심을 비우자. 비워진 내면을 사랑과 겸손으로 채워보자. 그동안 교회에서 훈련 받고 많은 사역 경험을 쌓은 우리들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격려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히 위로 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다. 비워진 그릇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그분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릇을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하실 것이다.

신앙에세이

김혜영 목사
(서빙고 차세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이 에너지다.”

2007년 한 광고에서 나온 말이다. 생각의 힘에 대해 아주 잘 표현한 광고였기에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얼마 전 읽은 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

이 있었다. 세 가지 그림을 보고 더 관련이 있는 두 가지 그림을 묶어 보라는 것이었다. 또 왜 그렇게 묶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는 말이 덧붙여 있었다. 그 그림은 바나나, 판다곰, 원숭이였다. 과연 어떻게 묶는 것이 정답일까 궁금했다. 책 내용에 따르면, 묶음 패턴을 분석해보니 서양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판다곰과 원숭이를, 동양의 대학생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경향이 강했다고 한다. 서양과 동양의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서양은 세상을 ‘범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동양은 세상을 ‘관계’로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다. 따

라서 서양인들은 동물의 범주에 속하는 판다곰과 원숭이를 골랐고, 동양인들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진 원숭이와 바나나를 골랐다는 것이다.

생각의 차이는 동일한 것을 바라보지만 다르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반응하도록 한다. 생각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느끼는 방식에, 가치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

단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생각의 힘은 아주 놀라운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그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28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1절)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32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도무지 같으니(33절)...”

그들은 인지적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또한 좌절과 실의에 빠져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31절)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14장 1절)”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았을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30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14장 7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8절)”고 고백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상황을 놀라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기 있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을

까? 각자의 생각대로 보고,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져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었으며, 20세 이상 하나님을 원망한 자 모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주장했던 2명의 정탐꾼인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로 자신의 인생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한다.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며 마음가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나부터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히스기야의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절망도 교만, 과신도 교만

첫째, 그의 기도를 보면 자신을 죽을병에서 살려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3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으로 스물다섯 살에 즉위해서 14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으로 행한 것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지위가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왕권에 대한 견제가 없는 시대에 왕이 얼마나 이상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왕 같은 권위가 아니라도 사람은 변하기 십상입니다. 어떤 위치가 주어졌을 때 건강하게 리더십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속에 있던 탐욕이 일어나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물다섯 살에 왕이 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으로 선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위상승배가 끊어지고 자신을 통해 선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분명한데 그 선한 일이 중단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4년 동안의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나라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일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위상승배가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그의 눈에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은 ‘그 일이 지속되는데 자신이 사용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간섭해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겸손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질병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질병이라고 했을 때 절망 속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한다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교만입니다. 절망도 교만이고, 과신도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지난 14년 동안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왕이 되었어도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신 이 선한 일이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즉각적이었고, 응답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 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와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네 수명을 15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 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5-6

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앗시리아의 손에서 성을 구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이상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의 회복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안전하게 되는 응답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랄 때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니까 살아야 하고, 내 문제는 형통해야 한다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뛰어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땅 위에 계속되기를 원하는 소원 속에서 자신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겸손한 기도가 드러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겸손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해병대에서 온 편지



최민음 대위
(해병대사령부
해병대중앙교회)

1949년 4월 15일 진해에서 380명으로 시작된 해병대가 지난 4월 15일 창설 70주년과 함께 2만 9천 병력을 거느린 국가전략기동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올해는 해병대뿐 아니라 해군·해병대교회도 창설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70년 전 대한민국군에 군종제도와 교회가 없을 때 1949년 2월 5일 한 남성이 자신의 군인관사 응접실을 군인 15명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사용하게 해준 남성은 제3대 해병대사령관을 역임한 김대식 중령이었고, 이곳은 최초의 군인교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독교인회(MCF)의 전신인 기독교장교회의 초대회장도 해병대 문희석 대령이었습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유명한 짜빈동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해병 2사단 3대대 11중대는 전 중대원이

신자가 되어 세례를 받고 ‘예수중대’로 불렸습니다. 이만큼 우리 해병대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기도로 시작된 부대이고,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는 호국충성 부대입니다.

저는 해군의 여러 부대뿐만 아니라 해병대 제1사단(포항)과 연평부대(연평도)를 거쳐 지금 해병대사령부(화성)에서 근무하면서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부심은 빨간 명찰을 단 해병대 일원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책임감은 ‘군종목사로서 어떻게 해병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요즈음 군 생활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병사들이 일과 이후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평일 외출도 나갑니다. 지휘관이 종교를 강요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시대가 되었고, 병장의 신앙에 따라 후임들이 따라 나오는 일도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대 내 전체 종교인 비율이 감소했고, 예배에 출석하는 병사들도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군선교의 위기라 불릴만한 시기에 작은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최

대한 많은 인원에게 어떻게든 세례만 주려고 했다면 이제는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교제하며 힘든 군 생활 중에 신앙을 지킨 리더로 양육하여 다시 사회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건이 좋아져도 군대는 군대입니다. 처음 만난 20대 청년에게 스스럼없이 목사가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대학가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군대의 청년들은 아직도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하고 고마워합니다.

해병대에는 16개 군교회와 11명의 군목이 포항, 김포, 백령도, 연평도, 제주도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군교회와 군목이 없는 도서지와 격오지에서는 병사들이 민간 마을교회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대와 교회를 가든지 늘 신앙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경읽기와 큐티, 일대일 제자양육을 원하는 청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군 생활이 편해지고 여건이 좋아져도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해병대교회와 장

병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해병대 11명의 군종목사와 해병대의 전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해병대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십시오. 해병대에 장병을 위한 성경책과 큐티책이 매우 부족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병대 군복무의 성경책’과 <생명의 삶>으로 청년들을 양육하고 싶습니다. 해병대에서 자발적인 성경읽기와 소그룹 큐티모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조리기와 커피머신 등을 지원해 주신다면 교회 카페가 장병 복음전도와 신앙양육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병대에서 느끼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군선교를 위해 미약하지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한결같이 육·해·공군·해병대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 신영섭 집사(군선교팀) 010-2208-088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9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덜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하노로 섬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덜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30 301호/네덜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자원 팀장(010-3489-208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로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온누리임양가족(제이홀) 임양세미나

일시: 5월 19일(주일) 오후 5시~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2층

꿈아이홀

문의: 김병찬 총무(010-3836-2717)

CMN 토브팀 치과외과사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 오후2시~5시

장소: 김포M센터(외국인 무료진료)

문의: 송기선 팀장(010-3778-0776)

CMN BEE팀 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23일~28일 인도네시아 롬복

분야: 비의료인, 치료, 약사, 피부과, 산부인

과, 간호사, 미용

비용: 130만원

문의: 한경식 팀장(010-9063-4196)

CMN 마노아팀 5월 국내사역안내

일시: 5월 19일 주일

장소: 평택 온누리 인도네시아 공동체

사역: 외국인 의료, 미용, 사진, 전도 등

문의: 이대현 팀장(010-3387-7764)

일대일 3040양육자반 수강생 모집

시간: 5월 8일~6월 10일 매 주일 오전 8시

10분~10시

신청: i-School

문의: 최지완 간사(02-3215-3220)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향: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CGNTV

작은 기쁨 음악회

5/31 (금) 7pm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

출연 /

				
가수 안키	소프라노 신델라	색소폰리스트 민병훈	가수 제이미스톤즈	CCM가수 박요한
				
개그맨 이정규	개그우먼 김선정	테너 최원휘	피아니스트 이진혜	온누리교회 뮤찬팀

*본 공연은 선착순으로 입장하며 좌석은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주관 : CGNTV 여성운영위원회 주최 : CGNTV 문의 : CGNTV 후원기획실 (02-796-2243)